



정용운 기자의 아이 러브 펫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개막...스크린 속 동물, 감동으로 다가오다



영화 '오드볼'이 제5회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에서 상영된다. 사고뭉치 개가 오스트레일리아 해안 관광지에 나타난 어우로부터 펭귄을 지키는 실화를 영화화했다.

미리보는 상영작



15일부터 19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시에서 '순천만 세계동물영화제'가 열린다. 5년 전 동물을 테마로 한 영화 행사로 세계 최초로 기획했던 영화제는 올해 반려동물과의 교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뜻의 'With Animal, 인간과 동물, 언제나 함께'라는 테마로 진행한다. 영화제 주제에 어울리는 19개국 34편의 영화가 행사 기간 동안 소개되는데 개막작 '레드 독: 트루 블루'를 포함해 주요 작품을 소개한다.

2011년 흥행영화 '레드독'의 이전 이야기

●레드 독: 트루 블루 (Red Dog: True Blue, 오스트레일리아, 2016)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의 자연을 배경으로 도시 소년과 레드독의 만남을 다룬 코미디 영화다. 2011년 개봉해 오스트레일리아 역대 흥행 11위를 기록한 영화 '레드독'의 프리퀄 스토리다. 레드독은 호주의 양치기 견으로 견종은 오스트레일리안 켈피 종이다. 영화에선 붉은 털을 가지고 있어 레드독이라 불린다. 오스트레일리안 켈피는 경계심이 강하고 예민하며 활발하고 머리가 좋다.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고 체력과 지구력이 뛰어나 주로 목양견, 가정견으로 키운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청소년 부

문 '제너레이션 K플러스' 상영작이며 에든버러 국제영화제, 선댄스 영화제 초청작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에게 감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영화다.

사고뭉치 오드볼이 선사하는 웃음과 감동

●오드볼(Oddball, 오스트레일리아, 2015)
오스트레일리아 워남볼 인근 해안의 펭귄 서식지로 유명한 관광지 미들아일랜드 섬에서 일어난 실화를 토대로 했다. 여우 몇 마리가 펭귄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빈번하자 양계장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펭귄 지키기에 나서고, 사고뭉치 양치기 개 오드볼이 펭귄을 지키는 임무를 맡아 여우들을 물리친다는 내용이다. 오드볼은 이탈리아가 원산지인 마렘마 시프도그 품종이다. 마렘마 시프도그는 양과 염소를 지키는 목양견으로 영리하고 대담하며 독립적이다. 반려동물과 쇼도그로 인기가 많다. '오드볼'은 2016년 42회 시애틀국제영화제에서 필름즈4페밀리즈 청년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전세계 화제가 된 바스킹 뮤지션과 고양이

●내 어게 위 고양이, 밥(A Street Cat Named Bob, 영국, 2016)
바스킹 뮤지션과 고양이의 우정을 담았다. 바스킹 뮤지션 제임스 보웬이 자신의 사연을 담아 발표해 30개국에서 번역될 정도로 인기를

모든 베스트 셀러가 원작이다. 아무 희망도 미래도 없이 사는 제임스 보웬은 상처 입은 고양이 밥을 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생활비를 뚝 떼어 치료해 준다. 제임스가 고양이 밥과 함께 바스킹 공연을 하면서 지금껏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따뜻한 환호와 관심을 모으게 된다. 영화는 소외된 두 존재가 서로 위로하며 치유하는 과정을 음악과 함께 감성적으로 담았다. 이들의 사연은 유튜브와 방송에서도 소개됐는데, 실제 주인공 고양이 밥은 영화에서도 자기 이름으로 출연했다. 2017년 40회 에데보라국제영화제 초청작이다.

기발한 상상력과 유쾌한 모험담 가득

●크리스무스 이야기(A Christmoose Story, 네덜란드, 2013)
영화에 나오는 동물은 제목과 연관시키면 쉽게 눈치 챌 수 있다. 무스(moose)다. 말코손바닥사슴의 영어 이름이다. 유럽에서는 보통 엘크(elk)라고 한다. 현존하는 사슴 중 가장 커 발끝에서 어깨까지 높이가 1.5~2m, 체중은 약 820kg까지 나간다. 큰 입과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말하는 거대한 사슴 무스가 산타클로스와 함께 시험 운전을 나왔다가 다치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 동심의 눈높이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발한 상상력과 유쾌한 모험담을 담았다. 2014년 16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64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초청작이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밤세·베이브·버디의 좌충우돌 모험 함께해요~

〈불곰〉 〈돼지〉 〈개〉

눈에 띄는 애니메이션

●불곰영웅 밤세: 도둑들의 도시(Bamse and the City of Thieves, 스웨덴, 2014)
'유럽의 디즈니'라 불리는 스웨덴 출신 만화가 루네 안드레이손의 '밤세-세상에서 제일 강한 곰'이 원작이다. 정의로움 불곰 밤세가 친구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못된 여우 레이나드에 게 납치된 할머니를 구하는 좌충우돌 모험을 담고 있다. 흥미로운 이야기에 가족 사랑, 우정, 사회성 등 교훈적인 내용도 담아 '에듀메이션(Education+animation)'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2014년 19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이다.

●꼬마돼지 베이브의 대모험(Friends Forever - A Pig's Tale, 독일, 2016)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헬메 하이너의 동화 '세 친구'가 원작이다. 영동순수 먹보돼지 베이브, 실수 연발 수탉 빌리, 문제 해결사 생쥐 미키가 지내던 평화롭고 조용한 농장에 욕심쟁이 악당 멧돼지 조커 패거리가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캄캄한 농장 지킴이 뼈악 시스템즈, 수영을 못하는 허당 비버, 농장마을 엄람관 박쥐 등 캐릭터들이 재밌다. 2016년 21회 부산국제영화제, 2017년 12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초청작이다.



'꼬마돼지 베이브의 대모험'의 한 장면.

●드림 송(Rock Dog, 중국, 2016)

'토이 스토리 2'의 애쉬 브래넨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노래할 때 가장 즐거운 '눈의 마을'의 경비견 버디가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진 라디오에서 세계적 톱스타 앵거스가 미래의 뮤지션들을 향해 "용기를 갖고 도전 하세요"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버디는 어릴 적부터 꿈꿔온 음악을 하기 위해 도시로 향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는 버디. 꿈을 향한 그의 여정이 펼쳐진다. 신나는 음악이 돋보이는 작품. 감독은 앵거스 캐릭터를 록 밴드 롤링스톤스의 보컬 믹 재거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6년 상하이국제영화제, 2017년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멜버른국제영화제 초청작이다.

정용운 기자

린틴틴·래시·벤지를 아시나요?

추억의 스크린 동물스타

영화 속에서 동물이 단순히 '살아있는 소품'이 아닌 작품을 이끄는 주인공으로 나온 것은 꽤 역사가 깊다. 무성영화 시절의 영국 영화감독 세실 험프리스의 1905년 작품 '로버에 의한 구출'이 최초의 반려견 영화이다. 험프리스 감독의 실제 클리종 반려견인 블레어가 주인공으로 등장, 유괴당한 아기를 구하는 활약을 펼쳤다.

1920년대에 등장한 린틴틴(Rin Tin Tin)은 동물영화계의 첫 슈퍼스타다. 독일산 셰퍼드인 린틴틴은 1923년부터 '동물 배우'로 스크린에 등장했다. 1927년까지 무려 40편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작품이 모두 흥행에 성공해 파산 위기였던 제작사 워너 브라더즈를 되살렸다.

영화 속 동물 스타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중장년층에게 가장 친숙한 캐릭터는 바로 래시(Lassie)다. 래시가 처음 등장한 작품은 1943년 미국 MGM사가 에릭 나이트의 소설을 각색해 제작한 '래시의 귀환'(Lassie Come Home). 당시 11살이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함께 나온 이 영화는 70만 달러의 제작비로 45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두며 대성공했다. 이후 MGM은 여세를 몰아 2005년까지 래시 영화를 10여편이나 만들었다. 래시가 우리나라 사람들



최초의 반려견 영화로 꼽히는 1905년작 '로버에 의한 구출'.

에게 친숙한 것은 TV 프로그램 덕분이다. 래시 주연의 프로그램은 1954년부터 제작해 미국 CBS에서 1973년까지 방영했다. TV용 영화도 여러편 만들어졌는데, 시리즈와 영화들이 꽤 많이 국내에 수입돼 방방곡곡에서 방영했다.

1970년대에도 영화를 통해 또 한 마리의 동물 스타가 등장한다. 바로 벤지(Benji)다. 1974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로 등장한 벤지는 작고 털이 북슬북슬한 코머 스페니얼과 푸들의 잡종견이다. 선배적인 린틴틴이나 래시와 달리 벤지는 좌충우돌하는 발랄한 캐릭터로 늘 사건의 중심에 놓이는 것이 특징. 영화 '벤지'는 국내에서도 주제가 '아이 펴 러브'(I Feel Love)의 인기와 함께 흥행에 성공했다.

도행스님의 염원으로 그린 친필!!

악한 당신의 사주를 용비보가 액운을 막아주고 강한 사주로 바꾸어 드립니다!

※ 용비보와 달마도는 도행스님께서 일체중생의 액운과 악운을 소멸시키고자 기도와 염원으로 그린 친필입니다.

오공(도호)
●양명궁 - 출세(취직, 승진, 합격, 당선)
●인연궁 - 결혼, 원진, 상충을늘려준다.
●운신대간 - 건강
●재물궁 - 재물
●편추 - 구설, 손재, 관재수 소멸

▲ 새벽 예불하시고 기(氣)와 부처님의 염원으로 용비보를 치는 도행스님

12지신(열두띠)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일한 영물 龍!

용비보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 사업이 어렵고 정사가 잘 안되는 사업장
- 가정에 액운이 많고 부부간에 화합이 잘 안되는 가정
- 몸이 허약하여 건강이 염려되는 분
- 악운을 내리고 호운을 불러 재운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분
- 구설수 손재수 염전소멸을 바라시는 분
- 수험생 자녀가 있는 가정

달마도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복을 행기세요

신운복(新運福) 황금 달마도

예로부터 달마도 그림은 집안의 액운을 막아주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효험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달마도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선물용으로도 많이 찾으십니다.

보시가 790,000원 가로 143cm X 세로 37.5cm (표구비용 별도입니다)

보시가 490,000원 가로 143cm X 세로 37.5cm (표구비용 별도입니다)

보시가 258,000원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통문화 포교회 추천: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사단법인 제6호 호불법 017-05-01호

상담문의 **1588-4164**

입금계좌 / 국민 : 430502-01-551526
예금주 김춘식